

IMF Survey

아시아 경제 전망

아시아는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추가 균형 조정이 중요

IMF Survey online
2012년 4월 27일



싱가포르 항구의 컨테이너선. 급격한 수출 감소로 인해 아시아의 경제활동이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사진: Fraser Hall/Robert Harding World Imagery/Corbis)

-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
- 유로 부채 위기는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음
- 지속적인 균형 조정이 외부 충격에 대한 최선의 보험

Blurb: 아시아의 성장은 2011년 마지막 분기에 침체된 후 금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현재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IMF의 정기 경제 전망 발표회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지역이 금년에 약 6 퍼센트 성장한 후에 2013년에는 더욱 성장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정도의 보험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단기 정책 과제입니다”라고 아누프 싱(Anoop Singh)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조했다.

“정책입안자들은 과열 압력이 명백해지는 경우 정책을 전환하여 긴축정책을 재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견실한 국내 수요

아시아는 취약한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의 견실한 성장을 유지해 왔다. 이것은 이 지역의 낮은 실업률과 견실한 신용 성장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증가하고 있고, 2012년에는 신흥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 유입이 회복되었다.

IMF는 아시아가 금년에 2011년과 대체로 같은 수준인 6 퍼센트 성장하고, 2013년에는 약 6½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시아의 신흥국들은 금년에 6.9 퍼센트 성장하여, 중국과 인도의 주도 하에 계속 전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아시아의 공업국들은 2.2 퍼센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성장의 차이

(전년 대비 퍼센트 변동)

| | 실제 자료 및 최근 예측 | | | 1월과의 차이 | |
|----------------------------|---------------|------|------|---------|------|
| | 2011 | 2012 | 2013 | 2012 | 2013 |
| 아시아 공업국 | -0.2 | 2.2 | 2.0 | 0.3 | 0.0 |
| 호주 | 2.0 | 3.0 | 3.5 | 0.0 | -0.1 |
| 일본 | -0.7 | 2.0 | 1.7 | 0.4 | 0.1 |
| 뉴질랜드 | 1.4 | 2.3 | 3.2 | -0.4 | -0.2 |
| 동아시아 | 8.2 | 7.3 | 8.0 | 0.1 | 0.0 |
| 중국 | 9.2 | 8.2 | 8.8 | 0.0 | 0.0 |
| 홍콩 SAR | 5.0 | 2.6 | 4.2 | -0.1 | 0.2 |
| 한국 | 3.6 | 3.5 | 4.0 | 0.0 | 0.0 |
| 대만 | 4.0 | 3.6 | 4.7 | 0.3 | 0.3 |
| 남아시아 | 7.1 | 6.8 | 7.2 | -0.1 | 0.0 |
| 방글라데시 | 6.1 | 5.9 | 6.4 | -0.3 | -0.1 |
| 인도 | 7.1 | 6.9 | 7.3 | -0.1 | 0.0 |
| 스리랑카 | 8.2 | 7.5 | 7.0 | 0.5 | 0.5 |
| ASEAN | 4.6 | 5.2 | 6.0 | 0.4 | 1.0 |
| 브루나이 다루살람 | 1.9 | 3.2 | 1.6 | 0.8 | -0.3 |
| 캄보디아 | 6.1 | 6.2 | 6.4 | -0.3 | 0.0 |
| 인도네시아 | 6.5 | 6.1 | 6.6 | 0.0 | 0.0 |
| 라오 P.D.R. | 8.3 | 8.4 | 7.1 | 0.0 | 0.0 |
| 말레이시아 | 5.1 | 4.4 | 4.7 | 0.4 | 0.2 |
| 미얀마 | 5.5 | 6.0 | 5.9 | 0.3 | 0.0 |
| 필리핀 | 3.7 | 4.2 | 4.7 | 0.0 | 0.0 |
| 싱가포르 | 4.9 | 2.7 | 3.9 | 0.0 | 0.1 |
| 태국 | 0.1 | 5.5 | 7.5 | 0.8 | 2.7 |
| 베트남 | 5.9 | 5.6 | 6.3 | 0.0 | 0.0 |
| 아시아 신흥국¹ | 7.4 | 6.9 | 7.5 | 0.1 | 0.1 |
| 아시아 | 5.9 | 6.0 | 6.5 | 0.1 | 0.1 |

출처: IMF 스탭 예측

¹ 아시아 신흥국에는 동아시아 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에 글로벌 경제와 금융 상태가 더욱 안정됨으로써 전 지역에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2012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감소하여 평균 약 3½퍼센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가 반영되어 있고, 몇 가지 경우에 수요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적 범위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에 대한 위협

이 지역의 성장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유럽의 금융 혼란이 아시아로 확대 및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선진 경제국에 대한 급격한 수출 감소와 외국 자본의 역류 현상은 이 지역의 경제 활동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언급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과 에너지 및 식품 보조금으로 인한 예산 위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까지는 강력한 경제 및 정책 펀더멘털이 유로 위기로부터 발생한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로부터 아시아 경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IMF는 아시아가 이 지역의 경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내 성장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경제의 균형 조정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최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싱 국장은 강조했다.

추가 균형 조정 필요

아시아의 전체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지역 GDP의 약 1½퍼센트로서 2012년에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IMF는 이러한 조정이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에 의한 결과로서, GDP의 일부인 소비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무역 조건과 위안화(RMB)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절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균형 조정은 중국이 투자 주도 성장으로부터 소비 주도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달려있다”고 언급했고, RMB 거래 범위를 확대한다는 중국 인민은행의 최근 결정을 환영했으며, 이 은행이 중국이 경제의 균형을 조정하고 시장의 힘이 환율 수준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